

고등학생의 비행경험 관련 요인

The Factors Related to Delinquent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계미순* · 최원희
거제대학 간호과

Mi Soon Je* · Won Hee Choi
Dept. of Nursing, Kojje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factors which were related to the delinquent behaviors among 2nd years high school in Geoje, Korea. The subjects were 618 high school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March to April, 2007.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12.0 program with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Kruskal-Wallis test,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tudents' delinquent behaviors differed by experience of smoking, experience of drinking, harmony of family, mother's education, father's smoking, mother's smoking, academical class, satisfaction of school-life, friends who smoked, drank alcohol, did drugs, and punished friends. Students' stress and depression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ir delinquent behaviors. The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punished friends, experience of smoking, depression, father's smoking, satisfaction of school-life were significant related factors to delinquent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t is necessary for home, school, and communi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preventing high school students from delinquent behaviors.

Key Words : delinquent behavior, stress, depression

I. 서론

청소년기는 유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지혜롭게 조율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기개발에 온 힘을 쏟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체감 확립을 위한 혼란과 방황을 겪으면서 갈등과 부적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비행이다. 김학현(2002)은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 속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교육, 대중매체의 범람, 그리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서구사조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불안과 불신, 갈등을 초래하면서 청소년의 비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 대상 지역의 지역주민 복지욕구 서베이조사를 실시한 김영종 외(2006)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와 관련하여 가장 염려되는 문제로 학교공부 및 성적 다음으로 학교폭력과 비행 및 일탈을 들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자치행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청소년 비행 및 범죄예방사업으로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일시적인 일탈행위가 습관화되고 만성화되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정문자, 송성자, 2001), 197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청소년 비행을 분석한 송건화(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강력화 되는 성향을 보이며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기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로서 미래를 위한 학업과 사회성 등을 성취해야 할 단계이기도하지만,

* Corresponding author: Mi Soon Je
Tel: 055) 680-1583, Fax: 055) 681-3993
E-mail: msje@koje.ac.kr

청소년들이 일단 문제소년이나 범죄소년이 된 경우에는 다시 일반소년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노성호, 1992).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 번의 실수로 일생을 그르치지 않도록 사회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역 고등학생의 비행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개인적·가족적·학교 및 친구의 특성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 등 심리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우선 많은 연구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비행경험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고정자, 2003; 이상균, 2000), 성별에 따라 비행경험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박성희, 2003). 연령은 대체적으로 증가할수록, 즉 고등학교로 갈수록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기숙, 1999; 이상균, 2000), 노성호(1992)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 개인적 특성으로 흡연과 음주가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명식, 권정혜, 2004; 김현수, 김현실, 2002), 김현수(1998)는 청소년 비행의 주요 판별요인으로 흡연과 음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행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성별, 흡연, 음주를 분석변수로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비행경험과 가족의 역할 및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 Sutherland, Cressey(1974)는 아동들이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해서 반드시 비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의 상황이 아동들로 하여금 비행유형과 접촉하며, 비행행동유형을 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에 비해 Hirschi(1969)와 Pearl(1985)의 경우 청소년 비행에서 가족의 역할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Hirschi(1969)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실질적인 감독, 자녀와의 친밀한 의사소통 등을 강조하면서 부모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은 도덕적 규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감정이 없고, 적절한 자의식이나 초자아를 가지게 되지 않아 비행과 연결되고 있음을 논의하고 있으며, Pearl(1985)은 청소년 비행에서 가정의 물리적인 구조보다는 가족 구

성원들 간의 내적인 관계,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의 비행과 가족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들 연구에서 가족과 관련된 변수들의 분석결과를 보면,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의 갈등,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건강도, 가족의 불화 등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었고(고정자, 2003; 김윤희, 강영자, 1999; 김희화, 2001; 박성희, 2003; 안상미, 2006; Buehler, Gerard, 2002), 이 외에도 청소년 문제행동은 가족유형, 가족소득, 부의 직업, 모의 학력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강현미, 1999).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을 연구한 논문들에서는 한 부모 가정이 부양과 양육의 부담을 혼자서 감당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훈육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 부모 가정의 청소년 비행이 일반 가정의 청소년 비행보다 높다는 결과가 있으나(유안진 외, 2005; 정문자, 송성자, 2001), 단지 형식적인 결혼여부는 비행과 관계가 없으며 가족 내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모와 자녀간에 근본적인 애착을 가지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있다(노성호, 199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특성으로 가족형태, 가족수입, 가족의 화목함, 부모성향, 부모와의 의사소통형태, 부모의 교육,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부모의 음주 및 흡연(강복수 외, 2005; 김용석, 1999; 황병덕, 2007)을 포함하였다.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학교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하위문화이론의 Cohen(1955)은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부적응의 문제를 일으킴으로서 비행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장이 된다고 하였고, 긴장이론의 Elliott, Voss(1974)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업성취, 학교활동에의 참여, 동료들간의 지위평등과 같은 목표를 성취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학교로부터 소외되게 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사귀게 되며 결국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논의하였다. 한편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 대부분의 비행이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친구의 역할이었다. 차별접촉이론의 Sutherland, Cressey(1974)는 청소년들은 범위반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가 범위반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를 능가할 때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는 친밀한 집단으로부터 학습되는 것이며, 비행적인 가치가 학습되는 것은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후 비행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비행친구가 비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Elliott et al.(1985)은 종단적인 연구에서 비행친구라는 변수가 비행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 청소년의 비행과 학교 및 친구 변인을 분

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이상균(2000)은 학교비행의 심각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실업계 고교임을 보고하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행과 관련된 요인으로 연령, 공격성, 비행성향의 또래집단과의 교류, 학업태도 및 학교붕괴적 환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학교 성적이나 공부시간 등이 비행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희화, 2001; 노성호, 1992). 청소년은 학교생활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친구와 함께 보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연구에서 친구관계는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이미경(2002)과 이미애(2005)는 학교환경에서 문제행동 친구 정도와 친구영향 정도가 청소년 문제행동과 가장 관계가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정기원(2007)은 비행친구와 청소년 비행 사이에는 순환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면서도 비행의 결과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교 및 친구의 특성에는 계열,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단짝 친구, 술·담배·약물 사용하는 친구, 처벌 받은 친구를 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이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청소년 일탈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사회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접근이나 심리학적 접근의 중간수준에 위치하는 변인으로 양자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동원, 2005). 낮은 자아개념이 비행에 개입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김도환 외, 1997)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가 자아개념의 하위차원에 따라 비행과의 연관성이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동원, 2005; 최 호, 2001).

다음으로 청소년은 주위환경의 변화와 자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로, 교우관계, 성문제, 학업성취문제, 가족문제 등 많은 스트레스에 봉착하게 되는데(김형선, 2001), 최정곤(1997)은 스트레스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비행을 한다고 하였고, 최정숙(2004)은 스트레스와 비행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비행행위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였다. 김선희(2006)는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폭력,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등의 비행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춘기를 전후해서 급증하게 되는 우울은 청소년들 사이에 비교적 공통적 현상으로 비행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화, 2001). 청소년들은 자신의 기분이 우울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기 보

다는 기분이 우울할 때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비행행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비행행동은 죄책감을 자극하여 우울한 감정을 악화시키고 또 다시 비행행동의 악순환을 겪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arlson, 1980; Conger, Peterson, 1984; Marriage et al., 1986). 이러한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곽금주, 문은영(1993)은 청소년의 여러 심리적 특성 중 우울이 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동원(2002)과 안상미(2006)는 우울이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을 포함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행경험을 고등학생의 행동 중에서 규범을 위반하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되는 일탈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일탈행동이 단순히 어떤 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행위자와 관련된 내·외적 요인들이 연계되어 비행이 유발하게 된다는 측면(김혁주, 2004; 노성호, 1992; 안상미, 2006)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곽금주, 문은영, 1993; 김선희, 2006; 김형선, 2001; 김희화, 2001; 이상균, 2000; 유안진 외, 2005; 주복동, 2002; 최정숙, 2004)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가족특성, 학교 및 친구의 특성 중 비행경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본 연구의 변수로 선택하였다. 여기에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심리적 특성인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을 포함하여 비행관련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적 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개인·가족·학교 및 친구)에 따른 비행경험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상자의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의 정도는 비행경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비행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특성변인과 비행경험과 상관관계를 보인 심리적 변인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G시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인문계고등학교 4개와 실업계 고등학교 3개) 2학년이며, 1개 고등학교에서 남녀 합반 3개를 임의선정하여 총 21개 학급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선행하는 연구들을 참조하여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학교 및 친구의 특성으로 나누고 개인적 특성 3문항(성별, 흡연경험, 음주경험), 가족특성 11문항(가족형태, 가정수입, 가족의 화목함, 부모성향, 부모와 의사소통 형태, 부의 교육, 모의 교육, 부의 음주, 모의 음주, 부의 흡연, 모의 흡연), 학교 및 친구의 특성 6문항(제열, 성적, 학교생활만족도, 단짝친구, 술·담배·약물 사용하는 친한 친구, 처벌받은 친한 친구)으로 구성하였다.

2) 자아개념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신체 사항, 도덕적인 관념, 성격적인 것, 가족에 대한 것,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모든 면에서 자신 및 주위 환경에 대한 생각, 관념, 태도, 신념 등을 말한다(고인균, 1987). 이 시형(1997)이 개발하고 최정숙(2004)이 사용한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의 α 값은 0.85였고, 최정숙(2004)의 연구에서 Cronbach의 α 값은 0.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의 α 값은 0.83였다.

3)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고 개인이 가진 자원에 부담이 되거나 그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과 그 사람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유발하는 일상적 생활환경에서의 사건들을 말한다(Lazarus,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김준호, 이동원(1996)이 개발하고 배안(2002)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관련 7항목, 공부 및 학교관련 7항목, 친구관련 6항목, 외모관련 4항목, 경제관련 영역 3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런적 없다'부터 '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배안(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의 α 값은 0.92였고, 하위영역 신뢰도는 부모관련 0.86, 공부 및 학교관련 0.85, 친구관련 0.86, 외모관련 0.77, 경제관련 0.79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의 α 값은 0.93이었으며, 하위영역 신뢰도는 부모관련 0.85, 공부 및 학교관련 0.84, 친구관련 0.87, 외모관련 0.78, 경제관련 0.79였다.

4) 우울

청소년의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1967)이 개발한 우울평정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이영호(1993)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Beck의 우울평정척도는 정신과적 진단과는 무관하게 우울 증상의 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 구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 중의 하나이다. 특히 표준적인 지시 절차로 우울을 측정하기가 용이하며 반응자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수량화하기 편리하다는 점에서 많이 선호되는 척도이다(한홍무 외, 1986). 성인에게 주로 사용되던 이 척도는 박현정 외(2000)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선별도구로 사용이 가능함을 밝혀 본 연구에서 선택하게 되었다. BDI는 우울한 사람의 증상과 기본적 신념의 관찰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21개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척도의 문항의 예로는 '나는 자살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든다'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등으로 0에서 3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다. 이영호(1993)의 연구에서 Cronbach의 α 값은 0.91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의 α 값은 0.93였다.

5) 비행

청소년 비행은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비행을 고등학생의 행동 중에서 규범을 위반하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되는 일탈행동으로 정의하고 김준호, 이동원(1996)이 개발하고 최정숙(2004)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비행 측정도구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위비행 5항목, 폭력비행 8항목, 절도비행 4항목, 도피비행 3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비행경험의 빈도를 고려하여 ‘없다’ 한번 있다 ‘2-3번 있다’ ‘4-5번 있다’ ‘6번 이상’의 5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정숙(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의 α 값은 0.86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의 α 값은 0.89였으며,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지위비행 0.69, 폭력비행 0.89, 절도비행 0.74, 도피비행 0.70이었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자료수집은 2007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본 연구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선생님의 동의를 구하고,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내용이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서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설문지를 자가기입 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650부 중 응답이 부실 기재된 자료 32부를 제외한 총 618부(남 263, 여 355)를 최종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 비행경험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행경험의 차이는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의 특성에 따라 변량의 동질성을 만족하지 않는 변수는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Scheffe의 검정으로 사후 검정하였다.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과 비행경험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비행경험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스트레스, 우울과

단변량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비행경험의 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개인적 특성에 따른 비행경험 정도를 보면 <표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비행경험의 정도는 총 비행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영역 중 도피비행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1$). 그러나 흡연경험과 음주경험에서는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없는 그룹보다 총비행경험이 높았으며($p<.001$), 음주의 경험이 있는 경우도 없는 그룹보다 유의하게 총비행경험이 높게 나타났다($p<.05$). 비행의 하위영역을 보면 흡연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지위비행 ($p<.001$), 절도비행($p<.01$), 도피비행($p<.01$)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지위비행 ($p<.001$), 도피비행($p<.05$)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가족특성에 따른 비행경험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가족특성 변수 중에서 가족형태, 가정수입, 부모성향, 부의 음주, 모의 음주에서는 총 비행경험과 비행의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의 화목함 ($p<.001$), 모의 교육($p<.05$), 부의 흡연($p<.05$), 모의 흡연 ($p<.05$)에 따라 총 비행경험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개인적 특성에 따른 비행경험 정도

(N=618)

변수	N(%)	지위비행		폭력비행		절도비행		도피비행		총 비행경험		
		M±SD	t	M±SD	t	M±SD	t	M±SD	t	M±SD	t	
성별	남학생	263(42.6)	7.14 ±1.98	0.48	9.85 ±4.44	1.25	5.10 ±2.50	-0.08	3.89 ±1.53	2.98**	26.00 ±8.32	1.23
	여학생	355(57.4)	7.05 ±2.31		9.39 ±4.58		5.12 ±2.62		3.55 ±1.22		25.12 ±9.02	
흡연 경험	유	147(23.8)	8.57 ±1.69	10.21***	10.38 ±6.49	1.86	5.84 ±3.48	3.14**	4.05 ±1.49	3.04**	28.86 ±11.44	4.40***
	무	471(76.2)	6.63 ±2.10		9.34 ±3.67		4.88 ±2.17		3.58 ±1.31		24.45 ± 7.40	
음주 경험	유	389(62.9)	7.40 ±1.82	4.27***	9.68 ±4.78	0.70	5.19 ±2.66	0.92	3.79 ±1.38	2.32*	26.07 ± 8.83	2.15*
	무	229(37.1)	6.57 ±2.59		9.42 ±4.05		4.99 ±2.41		3.53 ±1.33		24.51 ± 8.48	

p* $<.05$, p** $<.01$, p*** $<.001$

<표 2>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가족특성에 따른 비행경험 정도

(N=618)

변수	N(%)	지위비행		폭력비행		절도비행		도피비행		총 비행경험		
		M±SD	t /F (Scheffe)	M±SD	t /F (Scheffe)	M±SD	t /F (Scheffe)	M±SD	t /F (Scheffe)	M±SD	t /F (Scheffe)	
가족 형태	정상 결손	563(91.1) 55(8.9)	7.00±2.12 8.00±2.50	-2.85*	9.58±4.50 9.65±4.80	-0.11	5.10±2.57 5.23±2.64	-0.36	3.67±1.33 3.96±1.67	-1.25	25.36±8.71 26.85±8.90	-1.21
가정 수입 (만원)	1. 100이하											
	2. 100-200미만	47(7.6)	7.44±2.31		10.38±6.88		6.00±3.63		3.72±1.31		27.55±12.45	
	3. 200-300미만	130(21.0)	6.90±1.91	1.15	9.76±4.30	0.98	5.30±2.74	2.11	3.86±1.40	0.67	25.84± 8.23	1.32
	4. 300-500미만	233(37.7)	7.01±2.25		9.19±3.62		4.90±2.21		3.62±1.33		24.74± 7.46	
	5. 500이상	142(23.0)	7.09±2.12		9.61±4.59		4.97±2.36		3.64±1.33		25.33± 8.85	
	66(10.7)	7.48±2.38		10.00±5.48		5.18±2.84		3.71±1.57		26.37±10.23		
가족의 화목함	1. 불화	51(8.2)	8.15±3.40	8.31***	11.07±7.23	3.14*	6.52±4.27	8.57***	4.23±2.13	4.54*	30.00±14.72	7.56**
	2. 보통	150(24.3)	7.26±2.10	2.3<1	9.30±3.73	2.3<1	4.96±2.14	2.3<1	3.71±1.30	2.3<1	25.25± 6.94	2.3<1
	3. 화목	147(67.5)	6.90±1.96		9.51±4.33		4.99±2.39		3.62±1.26		25.03± 8.19	
부모 성향	1. 자부자모	343(55.5)	6.99±2.07		9.60±4.62		5.10±2.60		3.64±1.25		25.34± 8.73	
	2. 엄부자모	166(26.9)	7.14±1.99	2.32	9.27±3.59	0.40	4.98±2.11	0.69	3.66±1.32	1.10	25.06± 6.89	2.93
	3. 자부엄모	51(8.3)	7.05±1.80		9.29±2.83		4.92±1.68		3.86±1.53		25.13± 5.23	
	4. 엄부엄모	58(9.4)	7.60±3.29		10.65±6.86		5.75±3.90		3.94±1.91		27.96±14.11	
부모와의 의사소통 형태	개방적	472(76.4)	6.87±1.95	-3.83***	9.47±4.14	-1.15	5.02±2.36	-1.33	3.67±1.33	-0.77	25.05± 7.89	-1.93
	폐쇄적	146(23.6)	7.79±2.67		9.96±5.57		5.40±3.15		3.77±1.48		26.93±10.93	
부의 교육	1. 초·중졸	77(12.5)	7.42±2.98		10.25±5.22		5.51±2.94		3.94±1.82	3.07*	27.14±11.01	
	2. 고졸	414(67.0)	7.14±2.10	2.56	9.59±4.76	1.33	5.15±2.67	2.18	3.71±1.33	3<1	25.60± 8.92	2.87
	3. 전문대졸 이상	127(20.6)	6.74±1.79		9.18±3.01		4.76±1.90		3.48±1.14		24.17± 5.98	
모의 교육	1. 초·중졸	96(15.5)	7.28±2.75		9.94±4.71		5.57±3.00		3.88±1.69	4.42*	26.68± 9.98	3.73*
	2. 고졸	438(70.9)	7.13±2.11	1.87	9.68±4.79	2.11	5.11±2.62	3.25*	3.73±1.35	3<1	25.66± 8.99	3<1
	3. 전문대졸 이상	84(13.6)	6.69±1.71		8.67±2.20		4.59±1.50		3.30±0.91		23.27± 4.50	
부의 음주	1. 안마심	73(11.8)	2.49±0.29		9.69±4.60		5.27±2.79		4.02±1.58		26.32± 9.29	
	2. 마심	411(66.5)	2.04±0.10	0.48	9.45±4.15	0.60	4.96±2.27	2.20	3.62±1.25	2.75	25.10± 7.92	1.23
	3. 많이 마심	134(21.7)	2.40±0.20		9.94±5.47		5.48±3.22		3.73±1.57		26.24±10.59	
모의 음주	1. 안마심	204(33.0)	7.02±2.14		9.82±5.29		5.29±3.00		3.72±1.42		25.87±10.09	
	2. 마심	394(63.8)	7.04±1.99	5.25	9.39±3.79	1.05	4.96±2.21	4.26	3.64±1.24	1.75	25.05± 7.09	3.05
	3. 많이 마심	20(3.2)	8.75±4.45		11.05±7.96		6.15±4.04		4.40±2.64		30.35±16.99	
부의 흡연	1. 안피움	290(46.9)	6.84±1.97	3.89*	9.29±3.75	2.52	4.87±2.04	3.49*	3.57±1.25	2.69	24.58± 7.15	4.32*
	2. 피움	220(35.6)	7.25±2.05	1<3	9.56±4.50		5.19±2.66	1<3	3.74±1.33		25.75± 8.61	1<3
	3. 많이 피움	108(17.5)	7.43±2.79		10.43±6.13		5.62±3.46		3.92±1.69		27.41±11.98	
모의 흡연	1. 안피움	584(94.5)	7.03±2.03		9.56±4.53		5.09±2.57		3.65±1.29		25.35± 8.57	
	2. 피움	25(4.0)	7.64±2.34	4.66	9.56±3.78	2.31	5.32±2.32	6.12*	3.72±1.24	10.58**	26.24± 7.32	6.76*
	3. 많이 피움	9(1.5)	9.55±6.20		11.11±5.81		6.00±3.12	1.2<3	6.11±3.44	1.2<3	32.77±17.51	1.2<3

p* $<.05$, p** $<.01$, p*** $<.001$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하위영역에서 이들 변수를 살펴보면 가족의 화목함에서는 '불화'라고 답한 그룹에서 지위비행($p<.001$), 폭력비행($p<.05$), 절도비행($p<.001$), 도피비행($p<.05$)이 '보통'과 '화목'으로 답한 그룹보다 높았다. 모의 교육 정도에서는 초·중졸 그룹이 전문대졸이상 그룹보다 절도비행($p<.05$), 도피비행($p<.05$)이 높게 나왔으며, 부의 흡연에서는 '많이 피운다'고 답한 그룹이 '피우지 않는다'고 답한 그룹보다 지위비행($p<.05$), 절도비행($p<.05$)이 높았다. 모의 흡연에서는 '많이 피운다'고 답한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절도비행($p<.05$)과 도피비행($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형태에서는 총 비행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 비행의 하위영역인 지위비행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부의 교육 정도에서도 하위영역인 도피비행에서만 차이를 보였다($p<.05$).

대상자의 학교 및 친구의 특성에 따른 비행경험 정도는 <표 3>과 같다. 계열 변수에서는 실업계에서 인문계보다 총 비행경험이 높았으며($p<.05$), 하위영역에서는 지위비행

<표 3>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학교 및 친구의 특성에 따른 비행경험 정도 (N=618)

변수	N(%)	지위비행		폭력비행		절도비행		도피비행		총 비행경험		
		M±SD	t /F (Scheffe)	M±SD	t /F (Scheffe)	M±SD	t /F (Scheffe)	M±SD	t /F (Scheffe)	M±SD	t /F (Scheffe)	
계절	인문계	445(72.0)	6.95±1.95	-2.30**	9.47±4.37	-1.01	5.04±2.49	-1.01	3.58±1.24	-2.83**	25.06± 8.33	-2.00*
	실업계	173(28.0)	7.46±2.63		9.88±4.88		5.30±2.76		3.97±1.62		26.62± 9.62	
성적	1. 상	166(26.9)	7.09±2.05	0.73	9.40±3.97	2.32	4.93±2.16	2.00	3.80±1.50	3.15*	25.24± 7.48	2.58
	2. 중	307(49.7)	7.00±2.08		9.35±4.42		5.03±2.53		3.56±1.20		24.96± 8.43	
	3. 하	145(23.5)	7.27±2.49		10.29±5.23		5.48±3.03		3.86±1.51		26.92±10.44	
학교생활 만족도	1. 불만족	76(12.3)	8.28±3.31	16.63*** 2,3<1	11.06±7.42	4.97** 2,3<1	6.01±4.06	6.05** 2,3<1	3.93±1.77	2.61	29.30±14.48	9.76*** 2,3<1
	2. 보통	228(36.9)	7.18±2.12		9.56±4.46		5.14±2.55		3.77±1.39		25.67± 8.55	
	3. 만족	314(50.8)	6.73±1.72		9.25±3.47		4.87±2.03		3.58±1.23		24.45± 6.51	
단짝 친구	유	561(90.8)	7.07±2.05	-0.68	9.63±4.63	0.76	5.09±2.55	-0.56	3.66±1.30	-1.28	25.47± 8.70	-0.22
	무	57(9.2)	7.28±3.19		9.15±3.20		5.29±2.83		4.00±1.91		25.73± 9.11	
술·담배·약물 사용하는 친한 친구	유	280(45.3)	8.02±2.39	10.07***	9.97±4.97	1.91	5.38±2.80	2.37*	3.39±1.58	3.68***	27.31± 9.63	4.68***
	무	338(54.7)	6.32±1.62		9.26±4.09		4.89±2.35		3.50±1.13		23.99± 7.60	
처벌 받은 친한 친구	유	122(19.7)	8.76±2.84	7.70***	10.99±6.83	2.73**	6.04±3.62	3.36**	4.24±1.86	3.86***	30.40±12.60	4.78***
	무	496(80.3)	6.68±1.75		9.24±3.67		4.88±2.19		3.56±1.18		24.38± 7.06	

p* $<.05$, p** $<.01$, p*** $<.001$

(p<.01)과 도피비행(p<.01)에서 높았다. 성적에서는 총 비행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도피비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05) 사후 검증 결과 구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생활정도에서는 '불만족'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총 비행경험이 높았으며(p<.001), 하위영역에서는 지위비행(p<.001), 폭력비행(p<.01), 절도비행(p<.01)에서 높았다. 단짝친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술·담배·약물 사용하는 친한 친구 유무에서는 친구가 있는 경우 총 비행경험이 높았으며(p<.001), 하위영역에서는 지위비행(p<.001), 절도비행(p<.05), 도피비행(p<.001)에서 높았다. 처벌 받은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총 비행경험 정도는 친구가 있는 경우에 높았는데(p<.001), 이 경우 비행의 하위영역인 지위비행(p<.001), 폭력비행(p<.01), 절도비행(p<.01), 도피비행(p<.001) 등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2. 대상자의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의 정도와 비행경험과의 상관관계

우선 대상자의 심리적 요인인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의 정도를 보면, 자아개념은 평균 76.60으로 중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스트레스는 평균 52.21로 역시 중 정도를 나타내었다. 우울의 경우 평균 12.14로 경증 정도의 우울을 나타내고 있었다<표 4>.

<표 5>에서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과 비행경험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개념은 비행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

<표 4> 대상자의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과 비행경험 정도 (N=618)

변수	M	SD	범위
자아개념	76.60	9.98	30-120
스트레스	52.21	14.17	27-108
우울	12.14	10.62	0-63

<표 5>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 및 비행경험간 상관관계 (N=618)

변수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	비행
자아개념	1	-0.22***	-0.29***	-0.04
스트레스	-0.22***	1	0.42***	0.11**
우울	-0.29***	0.42***	1	0.16***
비행	-0.04	0.11**	0.16***	1

p* $<.05$, p** $<.01$, p*** $<.001$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경우 비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11, p<.01), 우울 또한 비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16, p<.001). 즉 스트레스와 우울이 증가할수록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과 심리적 변인들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대상자의 비행경험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던 스트레스, 우울과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명목 혹은 등간척도인 흡연경험(0=유, 1=무), 음주경험(0=유, 1=무), 가족의 화목함(0=불화, 1=보통, 2=화목), 모의 교육(0=고졸미만, 1=고졸 이상), 부의 흡연(0=안피움, 1=피움, 2=많이 피움), 모의 흡연(0=안피움, 1=피움, 2=많이 피움), 계열(0=인문계, 1=실업계), 학교생활 만족도(0=불만족, 1=보통, 2=만족), 술·음주·약물 사용하는 친한 친구(0=유, 1=무), 처벌받은 친한 친구(0=유, 1=무)를 가변수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벌 받은 친한 친구, 흡연경험, 우울, 부의 흡연, 학교생활만족도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11.1%였다<표 6>.

<표 6> 대상자의 비행경험과 관련된 제 변수 (N=618)

변수	R	수정된 R ²	β	F
처벌 받은 친한 친구	0.26	0.07	-0.19	43.94***
흡연 경험	0.30	0.09	-0.15	30.78***
우울	0.32	0.10	0.09	24.04***
부의 흡연	0.34	0.11	0.08	19.34***
학교생활만족도	0.34	0.11	-0.09	16.43***

p* < .05, p** < .01,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청소년 비행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수준의 관심사로서 비행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선의 방법은 비행이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여 예방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욕구조사에서 아동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자치행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청소년 비행 및 범죄예방사업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지역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변인들을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변수에 우선순위를 두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지는 각 지역의 청소년마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차이로 인해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일 지역 고등학생의 비행경험에 관련된 요인들과 그 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지역의 청소년 비행예방사업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선행연구에서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개인특성, 가족특성, 학교 및 친구특성으로 나누어 특성에 따라 비행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중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자아개념, 스트레스, 우울 등의 변인과 비행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요인들 중 지역의 청소년 비행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개인적 특성에 따른 비행 경험 정도의 차이를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흡연경험(p<.001)과 음주경험(p<.05)의 유무에 따라 비행 경험에는 차이가 있었다.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과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총 비행경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흡연경험은 하위영역인 지위비행(p<.001), 절도비행(p<.01), 도피비행(p<.01)에서 차이가 났으며, 음주경험은 지위비행(p<.001), 도피비행(p<.05)에서 차이가 났다.

흡연경험은 대상자의 23.8%에서 나타났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경험률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흡연경험률 34.5%(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6)와 타 지역의 흡연경험률 26.2%(황병덕, 2007)보다는 낮았으나, 김명식, 권정혜(2004)는 청소년기의 흡연은 일탈행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성인기의 약물남용, 폭력과 같은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김헌수(1998)는 청소년 비행의 주요 판별요인으로 흡연과 음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흡연과 음주에서 비행경험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행경험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를 줄일 수 있는 보건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헌수, 김현실(2002)은 흡연이나 음주가 비행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하나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개인의 반사회적 성격양상과 같은 성격요인, 성별요인, 가정 역동적 환경요인 등이 주요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향이나 공격성을 순화시키거나 가정의 역동적 환경요인을 좀 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접근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가족 특성에 따른 비행경험 정도의 차이를 분석결과 가족의 화목함($p<.01$), 모의 교육($p<.05$), 부의 흡연($p<.05$), 모의 흡연($p<.05$)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그룹에서 비행이 높고, 모의 교육정도가 낮고 흡연을 많이 하는 경우 비행이 높았으며, 부의 흡연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우 비행이 높았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지위비행($p<.001$), 폭력비행($p<.05$), 절도비행($p<.001$), 도피비행($p<.05$) 등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부의 경우 흡연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나 모의 경우 교육, 흡연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이 화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비행경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비행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났다. 이는 가족의 불화가 심한 경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 문제행동 및 비행이 조장된다는 고정자(2003)의 연구결과와 가족의 갈등이 청소년 우울과 비행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한 결과(안상미, 2006)와 비슷하였다. 가족은 청소년이 가장 먼저 경험하고 여러 형태로 가장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가족구성원들은 애정과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조하는 공동체로서 감수성이 높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지역의 가족기능 및 화목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추후에 가족변수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대상자 어머니의 교육 정도가 초·중졸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흡연을 많이 하는 그룹에서 비행경험이 각각 유의하게 높았는데, 청소년 비행이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무관하다는 연구도 있으나(김주분, 1994), 기광도(2001)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이 관련성이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이 강하게 되어 비행행동을 덜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주복동(2002)은 부-자녀와의 관계보다 모-자녀와의 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고정자(2003)는 청소년 비행에는 가족의 심리적 변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여러 변인 중 가족불화 정도와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황병덕(2007)은 고등학생 흡연경험자의 65.3%에서 아버지가 흡연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강복수 외(2005)는 남자 고등학생의 성격과 흡연행태 연구에서 대상자 53.7%에서 아버지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흡연이 대상자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국 부모의 흡연을 줄이는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청소년 비

행경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상자의 흡연을 줄여 비행경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인 금연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흡연을 줄이는 것이 본인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와 함께 자녀들의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지역 청소년의 비행경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좀 더 화목해지고, 모-자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부모의 흡연을 줄이는 보건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교 및 친구의 특성에 따라 비행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계열($p<.05$), 학교생활만족도($p<.001$), 술·담배·약물 사용하는 친한 친구의 유무($p<.001$), 처벌 받은 친한 친구의 유무($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실업계에서 비행이 높았으며, 학교생활정도에서 불만족의 그룹에서 지위비행($p<.001$), 폭력비행($p<.01$), 절도비행($p<.01$)이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술·담배·약물 사용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 지위비행($p<.001$), 절도비행($p<.05$), 도피비행($p<.001$)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처벌 받은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 가족의 화목함에서와 같이 모든 비행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났다.

인문계보다 실업계에서 비행경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지역의 실업계 학생들에서 비행경험이 높은 원인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에 불만족한 그룹과 술·담배·약물 사용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처벌 받은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에서 3개 이상의 하위영역에서 비행경험이 높았는데, 이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비행과 관련이 높았다는 이미경(2002)의 연구결과와 청소년기 비행의 설명에 있어 또래인 비행친구의 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았다는 김선희(2006), 노성호(1992) 등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한편 Warr, Stafford(1991)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비행친구를 좀 더 세분화해서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와 친구의 비행행동을 비교 검증하였는데, 검증결과 친구의 태도보다는 친구의 비행행동이 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내고, 모방이나 강화 또는 동조를 요구하는 집단의 압력과 같은 학습기제가 비행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 시 또래집단의 사정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학교환경 요인의 모든 변수가 청소년 전체 문제행동과 상관관계에 있었다는 연구결과(이미애, 2005)를 비추어 볼 때 문제행동 및 비행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면서 학교 내 상담프로그램을 포함한 학교환경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하겠다.

둘째, 대상자의 스트레스($r=0.11$, $p<.01$), 우울($r=0.16$, $p<.001$)은 비행경험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스트레스와 비행경험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가족의 보호에 의존하는 아동기와 독립된 존재로 생활을 영위하는 성인기의 중간 시기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김선희, 2006; 허진희, 2007)와 유사하였다. 장희주(1997)는 비행 경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행에 가담함으로써 정서적 고통을 잊는 지지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비행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울의 정도와 비행경험과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우울 또한 증가할수록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정서장애로서 대인관계, 인지, 문제해결, 사회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며, 다양한 신체적 문제와 사회적 기능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우울성향을 비교한 김유자(2000)는 비행청소년이 우울성향이 높았음을 보고하였고, 또 많은 선행 연구(곽금주, 문은영, 1993; 김동원, 2002; 안상미, 2006)에서 우울이 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인기의 우울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장희숙(1999)은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증상이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형태가 아닌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등의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외면적 일탈행동을 관찰할 때 저변에 깔린 우울의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안상미(2006)의 주장처럼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한 상담 개입 시 청소년이 보여주는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우울 등 내재화된 정서적 문제까지도 다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자아개념의 경우 비행경험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의 청소년 비행이론에 나타난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있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비행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비행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동원(2005)은 그 이유를

자아개념이 비행의 원인일수도 있지만 결과일수도 있는 상황에서 횡단적 연구방법은 일정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비행경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비행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스트레스와 우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p<.00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 자아개념의 확립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간접적으로는 비행경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상자들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행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흡연경험, 음주경험, 가족의 화목함, 모의 교육, 부의 흡연, 모의 흡연, 계열, 학교생활만족도, 술·음주·약물 사용하는 친한 친구, 처벌 받은 친한 친구였다. 스트레스와 우울은 비행과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상자들의 비행경험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변수들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벌 받은 친한 친구, 흡연경험, 우울, 부의 흡연, 학교생활만족도 순으로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총 설명력은 11.1%였다.

우선 학교 및 친구의 특성 중에서 처벌 받은 친한 친구 유무가 대상자의 비행경험을 가장 잘 설명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만족도 또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들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정체성을 찾으려 하루 일과 중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중심적인 사회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학교생활은 청소년 비행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좌절감이나, 학교생활에서의 불만족, 학교에 대한 반항심이 청소년을 비행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노성호, 1992). 한편 비행과 관련된 여러 이론이나 경험적 조사에서 비행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이 변수가 가장 비행경험과 관련이 높은 변수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로부터 범죄를 배우고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선 지역사회의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들의 협조적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 이미 비행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상담교사가 확보되어 학생들이 언제나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마련하여 학습문제, 진로문제, 인생문제, 성문제, 건강문제, 정서적인 문제 등을 상담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학업부진아들에게도 인정과 격려를 주는 방식으로 생활지도개선 및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살려 본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학교생활이 무엇인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인의 흡연경험과 부의 흡연경험이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 비행의 주요 판별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보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부모의 흡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수준의 차이가 흡연경험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황병덕, 2007) 학생들의 교육 요구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여러 협회 및 단체에서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시행하고 금연열풍이 불어 청소년의 흡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청소년기의 흡연이 성인기에 시작하는 흡연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일탈행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과 연구대상자들의 부의 흡연율이 50%에 달하고, 고등학생 흡연경험자의 약 60%에서 부의 흡연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지역 성인들의 금연운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우울이 지역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우울은 발달단계에서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청소년 자살행위와 관련이 있고(강은실 외, 2003),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안인영, 2005). 이 지역의 청소년 우울을 연구한 최원희, 제미순(2008)에 의하면 지역 청소년의 우울 유병률은 14.9%로 타 지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으며, 가정 경제 상태가 낮으며(높은 그룹에 비하여 상대위험률 2.39배), 본인의 건강상태가 허약하다고 인식하고(건강한 그룹에 비하여 상대위험률 2.64배),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에서 만족도가 낮고(교우관계가 만족한 그룹에 비하여 상대위험률 2.14배, 학교생활이 만족한 그룹에 비

해 상대위험률 3.95배),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는 학생들의 경우, 우울 정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노력이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비행경험을 예방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이 지역 고등학생의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고려한 청소년 보건교육 및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이 변인들 외에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행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지역 전체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 나가있는 고등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이 부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서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한점이 있다. 컴퓨터 및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은 인간의 활동양식, 생활문화,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환경으로 기존의 대중매체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청소년층에서는 인터넷 중독, 음란물 접촉,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차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관련이 있는 변수라도 연구의 설계를 횡단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원인-결과 관계를 가정하기 어렵고, 예측 변수의 설명력이 11.1%에 그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으로 다른 변수들을 고려 해 볼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청소년 비행, 스트레스, 우울

참 고 문 헌

- 강복수, 이미숙, 이경수, 황태윤, 박종서, 이중정(2005). 남자 고등학생의 성격과 흡연행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2(1), 135-146.
- 강은실, 조향숙, 송양숙, 강성년(2003). 청소년의 자살의도와 우울, 영적안녕과의 관계, 전인간호과학연구소 학술모음집, 2, 93-111
- 강현미(1999).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과 청

- 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인균(1987). 중년여성의 자아개념과 우울증에 관한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6(2), 29-43.
- 기광도(2001). 사회계층과 범죄행위간의 관계: 자녀양육 및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도환, 윤진, 장근영, 박윤창(1997). 비행개입 수준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55-166.
- 김동원(2002). 빈곤 청소년의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국제성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식, 권정혜(2004). 청소년 흡연행동에 대한 인지매개 모델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3, 297-312.
- 김선화(2006).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종, 제미순, 오미옥, 김윤경, 이강훈, 김선동, 김지영, 박은희(2006). 거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거제시, 185-208.
- 김용석(1999).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39(4), 103-127.
- 김유자(2000). 비행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우울성향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강영자(1999). 비행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2), 245-254.
- 김주분(1994).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이동원(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학현(2002).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소고.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헌수(1998). 청소년 비행행도의 판별요인 분석. 신경정신의학, 37(3), 483-492.
- 김헌수, 김현실(2002). 한국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지, 41(3), 472-485.
- 김혁주(2004). 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선(2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유형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2001). 청소년의 초기 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8(1), 143-162.
- 노성호(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희(2003). 청소년 비행의 개인특성, 가정 및 학교요인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김형남, 김인복, 전승아(2000). 청소년에서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신뢰도. 가정의학회지, 21(2), 244-253.
- 배안(2002). 전라남도 청소년(중등학생) 정신건강 현황. 지역사회기반의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움. 전남나주병원, 6-8.
- 송건화(2003).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미(2006).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인영(200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과 우울과의 상관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6). 2006년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흡연 실태조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2005).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 이기숙(1999). 부산지역 청소년의 유해환경과 비행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10, 5-26.
- 이동원(2005). 청소년 자아개념과 비행. 한국공인행정학회지, 19, 357-383.
- 이미경(2002). 학교 환경요인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2005). 학교환경요인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2000). 청소년의 학교비행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 15, 109-132.
- 이시형(1997). 청소년 정신건강지수 개발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청소년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영호(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과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학지사.
- 장희주(1997). 자아강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청소년의 비행수준과의 관계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기원(2007). 비행친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청소년학연구, 14(1), 213-236.

- 정문자, 송성자(2001).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0(12), 239-251.
- 주복동(2002). 중산층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원희, 제미순(2008). 일개 중소도시 일반계 고등학생의 우울정도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2(2), 199-211.
- 최정곤(1997).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스트레스 및 비행.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숙(2004). 청소년의 자아개념, 스트레스, 비행의 관계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 호(2001). 비행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홍무, 염태호, 신영우, 김교현, 윤도준(1986). Beck Depression Inventory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신경의학*, 25(3), 487-500.
- 황병덕(2007). 고등학생들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및 흡연 관련 특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4(2), 45-61.
- 허진희(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개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ck AT(1967).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4, 561-571.
- Buehler C, Gerard JM(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78-92.
- Carlson GA(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445-449.
- Cohen A(1955). *Delinquent Boys*. New York : Free Press.
- Conger JJ, Peterson AC(1984). *Adolescent and youth*. New York : Haper & Row Publishers.
- Elliott DS, Huisinga D, Ageton SS(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 Elliot DS, Voss HL(1974). *Delinquency and Dropout*. Lexington : D.C. Health and Co.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zarus RS,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arriage K, Fine S, Moretti M, Haley G(1986).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5, 687-254.
- Pearl AJ(1985). The Familial Inter-relationship Patterns, Socializ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 An Integrated Theory and Research, Ph.D. Dissertation at Western Michigan University.
- Sutherland EH, Cressey DR(1974). *Criminology*. Philadelphia : Lippincott.
- Warr W, Stafford M(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cy Peers : What They Think or What They Do?. *Criminology*, 29(4), 851-66.

(2008. 4. 23 접수; 2008. 5. 18 채택)